



獨自的인 업무개발로 새로운方向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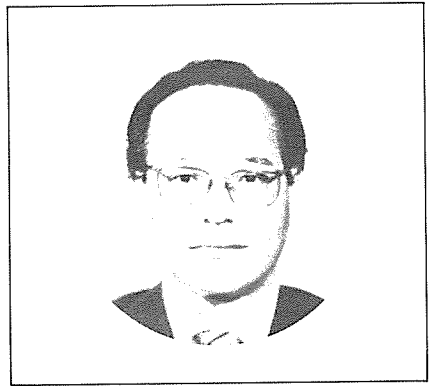
業界의 生産性향상등 技術지원에도 힘쓰터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신흥공업국의 수출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우리만의 獨創的인 고유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신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것만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韓國生活用品試驗檢查所 金海吉 소장은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기술과 품질관리기법을 도입, 발전시켜서 국제시장에 내놓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만이 비로소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사에 의한 품질보증보다는 업체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金소장은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된 고도의 工業化와 함께 史上 최초로 흑자무역수지를 기록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 국산품들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기술개발 및 제품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면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제환경속에서 우리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經營環境의 개선을 통한 제품의 생산성 향상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품질향상이라는 면에서 볼 때 우리 검사



◇金海吉소장

소에 부여된 사명과 임무는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더 크고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金소장은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는 그간 시험·검사업무는 물론 對업계 각종 기술지도 및 관계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 생활용품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금년초에는 아시아지역에서 처음으로 日本通商産業省으로 부터 시험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제적으로도 신뢰도를 인정받는 기관으로 발전한 만큼 앞으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밝힌다.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는 16년전인 1971년 한국毛物毛皮시험검사소와 한국工藝品 시험검사소의 2개 기관을 통합, 韓國輸出雜貨 시험검사소로 설립된 이래 그 기능과 업무영역이 다양화하고 확대됨에 따라 세차레 걸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명실상부한 생활용품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성장·발전해 왔지요.』 金소장은 검사소는

처음에는 수출검사법에 대한 단순한 수출상품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그간 内需 공산품 및 수입품의 검사기능을 부여받았고 계량계측기기에 대한 국가較正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검사대상품목도 소수의 雜貨품목에서 광범위한 생활용품으로 확대되었을 뿐만아니라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지도, 의뢰시험의 활성화를 통해 對업체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어 명실공히 생활용품 전반에 걸친 비영리 공공시험검사기관이라고 소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제3공화국 출범 이후 공업화정책과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초기단계에서 조악한 품질의 제품이 수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품질과 對外 弊價를 유지·향상시켜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제정된 輸出 檢査法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검사를 실시하게 된데서 시작되었다고.

『특히 지난 82년 부터는 국내 최초로 우수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로써 KS 및 관련 외국 규격을 참고로 하여 정한 수준높은 품질기준에 의해 Lot별로 철저한 시험검사를 거쳐 합격된 제품에 Q마크를 부착 판매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품질을 보증하는 Q마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소장은 Q마크는 구두등 신변용품을 비롯 문구류, 가정용품, 레저용품, 어린이용품, 약기류, 기타 각종 공업재료 및 일반생활 공산품 등을 대상으로 우수상품에만 부착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自社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으며 불량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등 완벽한 사후봉사를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마크라고 설명한다.

검사소는 또 美·日·홍콩의 전문시험 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시험검사업무도 대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기술, 우수한 전문 요원과 최신설비를 이용하여 일반시험 분석용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KS”, “품” 등 규격시험 △납

품검수에 따른 수입검사 △자체품질관리를 위한 품질확인시험 △BS, CPSS, PS등 특수규격에 의한 바이어검사등을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3차교정검사기관으로 계량계측기기의 정밀·정확한 측정표준공급을 위하여 길이, 표면粗度, 부피, 질량 및 무게, 온도, 힘, 압력, 재료물성등 8개 분야의 교정검사업무도 다루고 있다.

또한 전문기술 요원과 외국의 시험기관에 비해 손색이 없는 각종 최신 이화학시험시설을 갖추고 KS, JIS, ASTM등 국내의 공업규격을 완비하여 완제품 또는 원부자재에 대한 정밀시험·분석·감정·검사및 증명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정부방침에 따라 각종시험·검사 업무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90년대 중반 정도에 이르면 이러한 검사업무는 업체의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행해지는 자체검사로 전환되리라고 보아됩니다』 金소장은 그때쯤이면 정부의 의무규정에 의해서 보다는 생산업체 스스로가 自社제품의 품질을 위해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그에 따른 검사소의 새로운 방향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검사소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제도와 절차를 개선, 보완하고 인원과 시설을 확충 보강하여 단순한 검사업무만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업계의 생산기술과 관리능력배양을 적극 지원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앞으로 검사소의 기능을 이제까지의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원가절감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생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對업체지원 등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기초조사연구등 독자적인 연구업무를 찾아서 생활용품시험검사소만이 해낼 수 있는 독특한 고유업무개발에 힘써 검사소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보다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權光仁 記)